

Public Awareness towards Participation of Reserve Forces in Peacekeeping Operation

Se Young Le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 Police Administration, Konyang University, 121 Daehak-ro, Nonsan, Chungnam, Korea

Abstract

South Korea has now been developed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managing the national crisis under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rganizations. It aims to contribute to resolve global problems by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such as deployment of troops in disputed area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monitoring and reconstruction support. As South Korea builds up a stronger national power as a developed n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require it to take even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experts, civil society groups, police, and reserve forces. Among these groups, particularly, reserve forces are capable resources who can perform peacekeeping activities successfully with the current military forces.

Key words: world peace, peace keeping operation, national security, reserve forces, the dispatch of troops

1. 서론

한국은 1991년 9월 17일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25개국에 4만 여 명의 평화유지군, 다목적군, 군 옵서버 요원 등을 파견해 국제평화유지와 재건과 국위 선양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군대를 외국에 파병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일이며,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리더십을 축적해나가고 유엔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시에도 한국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민들의 인식과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화유지활동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파병관련 제도, 파병관련 부대유형, 인적구성 유형 등이 조절효과로써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비군 해외파병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Se Young Lee, Tel. +82-41-730-5735, Fax. +82-42-551-1541, e-mail. lsy0758@hanmail.net

한국의 해외파병정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파병부대의 임무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비추어 볼 때 평화유지활동 선진국에 비해 파병임무나 파병지역 등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파병활동에 대한 분석과 전반적인 파병환경의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본 파병에 대한 인식 및 조절 효과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전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군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조절효과 중심의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정책 결정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냉전시대의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하게 정전협정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에 접어들면서 평화유지활동은 진화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분쟁이 국가 간의 분쟁에서 국가 내 무력집단 간의 분쟁으로 바뀌면서 분쟁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재건활동을 하고 정파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탈냉전 이후 유엔이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내분쟁까지 개입하게 되고 단순한 목적의 개입이 아닌 평화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도 확장되어 왔다.

유엔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평화유지(peace keeping)라는 용어는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그 정의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평화학회는 평화유지를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多)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당사집단의 적대 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The Blue Helmet에서는 “유엔이 무력의 사용 없이 군사요원을 포함하여 분쟁지역의 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을 돕기 위하여 펼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란 국제적 또는 국지적 분쟁의 해결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엔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 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여 설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임무단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총칭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Boutros 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92년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평화를 위한 아젠다」라는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유엔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엔현장의 규정 범위 내에서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등을 위한 유엔의 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Kim, 2006: 463).

이를 종합해 볼 때,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분쟁지역에 공평하게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관리하는 유엔의 제반활동’(Kim, 2005: 54)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유엔의 제반활동’에는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재건, 평화강제, 예방외교 등의 세부 활동들이 있고, 예방외교와 평화조성은 분쟁예방 전략으로, 평화유지와 평화강제는 분쟁타결 전략으로, 평화재건은 분쟁해결 전략으로 분류한다(Song, 2006: 2).

1)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예방외교란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현존 분쟁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의 확산을 제한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Nam, 2002: 73). 분쟁예방 개념의 사용 역사는 오래 되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D. Hammarskjöld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잠재적으로 위협한 지역에 유엔의 개인대표를 파견하여 ‘유엔의 존재’를 그 지역에 심어 놓음으로써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Nam, 2002: 74), Boutros 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외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이를 봉쇄하고 근본원인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Nam, 2002: 74).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수단들이 필요하며, 조기 경고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분쟁에 대한 사전경고를 발할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비무장지대의 설치도 필요하다’(Oh, 2000: 34)고 역설하였다. 위기 지역에서 유엔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국제사회는 분쟁이 발생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분쟁을 방지했다가 막대한 자금·물자·인원을 투입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스스로의 모순을 저질러 왔고, 결국 그 비용은 조기 개입한 경우에 비해서 수백 배나 늘어났던 것이다(Oh, 2000: 75).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예방외교이며 그 중의 한 방법이 예방전개이다(Oh, 2000: 75).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 또는 관련 당사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 유엔은 분쟁 예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미리 전개할 수 있는데 구(舊) 유고슬라비아의 한 공화국이었던 마케도니아 평화유지군(UNPREDEP)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Oh, 2000: 75).

2)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조성은 “유엔 헌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인 정치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평화조성은 분쟁 중에 있는 정치집단끼리 단절된 상호활동을 회복하는 시도이며 그 결과물은 통상 정전 동의 또는 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나타난다. 이 활동은 평화유지군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이 전개되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 간에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활동해야 하고, 이들에게 협정 준수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일도록 협상해

야 한다(Heo, 2002: 75). 또한 평화유지군이 전개된 이후에는 협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게 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분쟁의 평화적인 종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이 평화조성 활동이다(Heo, 2002: 75).

3)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유지란 ‘분쟁과 관련된 모든 정치집단들의 동의 하에 통상 유엔 군사요원과 경찰요원 및 민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한다(Heo, 2002: 76)’는 것은 진행 중인 분쟁에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분쟁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되거나 또는 분쟁지역 내에서 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뜻이다.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한다(Heo, 2002: 76)’는 것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정전협정이 체결된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평화유지가 정전협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Heo, 2002: 76). 이러한 환경조성은 군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선거감시 요원 또는 인도주의 지원요원 등 민간인이 동시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Heo, 2002: 77).

4)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강제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에 의한 활동이 분쟁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6: 464-465). 평화강제 수단은 대부분 유엔 헌장 제7장에 명시되어 있다. 유엔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특정 정치집단이 합의된 정전을 위반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이를 파기하고 다시 분쟁에 돌입하는 경우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방

법은 세 가지가 있다(Heo, 2002: 78).

첫째는 유엔요원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유지 활동단이 철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유엔이 중재·주선 등 평화조성 방법을 사용하여 정전을 파기한 특정 정치집단이 다시 정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특정 정치집단을 ‘평화의 파괴 또는 위협집단’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응징하는 방법이다(Oh, 2000: 37). 세 번째 방법에 의한 것이 바로 평화강제 활동이다(Heo, 2002: 78).

집단안보적 성격의 강제(enforcement)활동과 평화유지활동의 한 유형인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는 차이가 있다(Heo, 2002: 79). 전자가 개입 초부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자’를 규정된 뒤 유엔군이 집단안보를 수행하면서 분쟁의 피해자를 동맹으로 삼는데 반하여, 후자는 유엔군이 분쟁당사자들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되 어떤 정파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강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걸프전이 유엔의 강제 활동인 반면, 소말리아의 다국적군(UNITAF), 동티모르의 다국적군(INTERFE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다국적군(RRF) 등은 평화강제 활동이다(Heo, 2002: 79). 또한 전자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자’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조직적인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쟁차원의 강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반드시 전쟁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평화강제는 최초부터 평화강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평화강제 임무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한 유엔이 통제하는 평화유지 임무 수행요원들은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고 특정국가가 중심이 된 다국적군(Unified Task Force)이 유엔의 권위 하에 평화강제 임무를 수행 할 수도 있다(Heo, 2002: 79).

5) 평화재건(Peace Building)

평화재건이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 간에 신뢰와

번영의 감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어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 노력(Heo, 2002: 80)이다. 이 노력 속에는 분쟁 당사자의 무장해제, 무기의 회수 및 파괴, 난민 복귀, 선거 감시, 인도주의 구호활동, 인권보호활동, 정부기관의 재편 및 강화들이 포함된다(Heo, 2002: 80). 분쟁 당사국에 대한 유엔의 정치적 지원,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이 평화재건의 핵심요소이다(Oh, 2000: 37).

분쟁이 발발했을 때 평화조성과 평화유지는 나란히 혹은 순차성을 두고(Oh, 2000: 37) 이루어지며 상호 보완되면서 시행된다. 이러한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분쟁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통해 획득된 소극적 평화가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전진하게 된다(Heo, 2002: 79). 또한 ‘예방외교가 위기를 막는 것이라면 분쟁 후 평화재건은 분쟁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고, 평화조성은 ‘분쟁원인인 사회적·경제적 긴장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목표를 둔 조치’이기도 하다(Oh, 2000: 38).

유엔의 평화재건 활동은 평화유지군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기구(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어린이 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UNESCO) 등 유엔의 특별 및 보조기구와 지역기구 및 NGO(Heo, 2002: 80)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지기도 한다. 평화재건 활동이 분쟁 후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평화유지활동의 범주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화유지활동단이 전개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철수한 후에도 유엔의 특별 및 보조기구 등에 의해 이러한 활동은 계속된다(Heo, 2002: 81).

2.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한국은 17세기 후반으로부터 3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평화유지활동은 없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유지활동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공산주의 차단이 곧 한반도 안보와 직결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파병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1964년 9월에 최초로 이동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그 다음해 3월에는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이 파병되었다. 이어서 육군의 수도사단(맹호부대)과 제9사단(백마부대),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등의 전투부대와 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 백구(해군수송전대)·은마(공군지원단) 부대 등 전투지원부대의 파병이 이어졌다. 이후 1973년 3월에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8년 6개월간 육·해·공군 연인원 325,517명의 병력이 베트남전에 투입됨으로써 한민족 파병 역사상 최장·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991년에는 쿠웨이트를 무력 합병한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가 단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국군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당시 한국은 유엔 비회원국이지만에도 우방국의 요청과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른바 다국적군으로 1991년에 의료지원단 154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하듯 이어, 공군 수송단 160명을 항공기(C-130) 5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파견하여 걸프전을 지원했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1991년 9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유엔 회원국으로써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파병 지역과 기간도 다양해졌다. 비록 단기간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경찰과 민간인들도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파병 모델의 선례가 되었다. 탈냉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지역분쟁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증대되자 유엔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은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단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18일까지 연인원 516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그리고 1995년 10월부터 약 1년간 연인원 600명의 야전공병단이 앙골라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연인원 3,300여명에 달하는 상륙수부대가 동티모르에서, 서부사하라에서는 199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제 23진에 걸쳐 국군의료지원단이 국제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

높였다.

한편 대테러전쟁 지원 차원에서는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항구적 자유작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해군(해성부대) 및 공군(청마부대) 수송단을 파병하였고, 2002년부터는 연인원 1,956명에 달하는 육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과 공병부대(다산부대)를 파병하였다. 2003년 3월의 ‘이라크 자유작전’에는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을 파병했다가 이라크의 전후복구지원을 위해 이를 다시 사단급 부대규모의 합동군으로 편성된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여 성공적인 평화재건활동을 수행하였다. 걸프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을 종료한 현황과 현재 활동 중에 있는 현황을 보면 <Table 1>과 같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은 <Table 2>와 같이 총 15개국에 1,389명의 장병들이 파견되어 활동 중¹⁾에 있는데 파병지역 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은 위와 같은 평화유지활동 시 국제사회로부터 해외파병의 모델국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평화유지활동 시 임무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내용을 보면 <Table 3>과 같다.

3. 선행연구 검토

Yoon(2012)은 해외파병을 단순한 군사적 활동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군사외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국의 국력 수준에 걸맞지 않는 국가이미지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코리아는 주요활동 수단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기여 국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발언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아크부대 파병을 통

1) As of 2014.11.27., <http://www.peacekeeping.go.kr>(search : 2016. 10. 22)

Table 1. List of completed peace-keeping activities since Gulf War

Dispatch Period	Region	Dispatched Troop	Man-Year	Unit
1991.1.24~4.10	Gulf War	Korean Military Medical Support Group in Saudi	154	Troop
1991.2.24~4.10		Korean Air Force Transportation Fleet in UA	160	Troop
1993.7.30~1994.3.18	Somalia	Sang-rok-su Fleet (Engineer)	516	Troop
1994.8.9~2006.5.15	Western Sahara	Korean Military Medical Support Group	542	Troop
1994.10.6~2009.7.10	Gruziya	Truce Supervision Group	88	Individual
1995.10.5~1996.12.23	Angola	101 Engineer Battalion	600	Troop
1999.10.4~2003.10.23	Eastern Timor	Sang-rok-su Troop (Engineer)	3,283	Troop
2000.1.16~2004.6.4		Staff/Liaison in Western Timor	45	Individual
2001.12.18~2003.9.1	Afghanistan	Hae-sung Troop (Air Force Transportation Support Group)	823	Troop
2001.12.21~2003.12.20	Afghanistan	Chung-Ma Troop (Air Force Transportation Support Group)	446	Troop
2002.1.4~2003.12.23	Cyprus	Cyprus Commander	1	Individual
2002.2.27~2007.12.14	Afghanistan	Dong-Eui Troop (Medical Support Group)	780	Troop
2002.3.28~2010.6.15	Afghanistan	CJTF-82 Coordinating Officer	23	Individual
2002.3.28~2008.12.4	Afghanistan	CJTF-101 Coordinating Officer	22	Individual
2002.7.21~2007.1.26	Afghanistan	CFC-A Staff Officer	9	Individual
2003.2.12~2008.12.19	Iraq	MNF-I Coordinating Team member	49	Individual
2003.3.28~2007.12.14	Afghanistan	Da-San Troop (Construction Enginner Support Group)	1,330	Troop
2003.4.30~2004.4.30	Iraq	Seo-Heui Troop (Construction Enginner Support Group)	956	Troop
2003.4.30~2004.4.30	Iraq	Jae-Ma Troop (Medical Support Group)	185	Troop
2003.8.7~2008.12.19	Iraq	MNF-I Staff Officer	82	Individual
2004.4.23~2008.12.30	Iraq	Zaytun Troop (Citizen Support & Reconstruction)	17,708	Troop
2004.9.15~2006.12.11	Brundi	UN Brundi Operation	4	Individual
2004.10.12~2008.12.21	Iraq	Daiman Unit (58th Air Force Transporation Fleet)	1,324	Troop
2005.12.7~2008.12.17	Iraq	RRT Deputy Chief	4	Individual
2008.4.23~2010.7.1	Afghanistan	KMVTT Military Medical Staff	20	Individual

※ Source : <http://www.peacekeeping.go.kr/>, 2016.10.22.

Table 2. List of current overseas dispatch (as of 2014.11.27.)

Item		Current Staff	Region	Commencement	Replacement Interval	
UN PKO	Troop	Lebanon Dong-Myeong Troop	Tyre	Jul., 2007	8 months	
		Southern Sudan Han-Bit Troop	Bourj	Mar., 2113		
	Individual	UNMOGIP	7	Srinagar	Nov., 1994	1 year
		UNMIL	2	Monrovia	Oct., 2003	
		UNMISS	7	Juba	Jul., 2011	
		UNAMID	2	Darfur	Jun., 2009	
		UNIFIL	4	Nakura	Jan., 2007	
		UNOCI	2	Abidjan	Jul., 2009	
		MINURSO	4	Layonne	Jul., 2009	
	MINUSTAH	2	Port-au-Prince	Nov., 2009		
Subtotal		636				
Multina tional Force Peaceke eping Activity	Troop	Somalia Sea Chung-HaeTroop	Somalia Sea	Mar., 2009	6 months	
	Individual	Bahrain United Navy Command	Staff Officer	4	Manama	Jan., 2008
		Djbouti CJTF-HOA	Coordinating Officer	2	Djibouti	Mar., 2009
		United States Central Command	Coordinating Group	2	Florida	Nov., 2001
Staff	1					
Subtotal		308				
Military Cooper ation	Troop	UAE Arch Troop	Al Ain	Jan., 2011	8 months	
		Philippine Aura Troop	Tacloban	Dec., 2013	6 months	
	Subtotal		445			
Total		1,389				

※ Source: <http://www.peacekeeping.go.kr/>, 2016.10.22.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AMID: AU-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OCI: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ôte d'Ivoire, MINURSO: Mis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el Referéndum del Sáhara Occidental, 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CJTF-HOA: 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

Table 3. Evaluation of peacekeeping activities by citizens in operation region

UN	Eastern Timor	King of International Military Force, Korea number one
	Lebanon (Dong-Myeong Troop)	Bless from God and true friend
	Haiti(Dan-Bi Troop)	Angel of Leogane
MNF	Afghanistan (Dong-Eui Troop)	Another bless from God following Admiral Ahmed Shah Masoud, a war hero of Afghanistan
	Afghanistan (Da-San Troop)	Korea number one
	Iraq (Zaytun)	Best gift from God, Zaytun is true friend of Kurd
	Iraq (Ashena)	True friend of Afghanistan

※ Source: Park(2012: 97).

해 UAE군에서 한국군 예비역들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Korean Defense Daily, 2012.07.26).

Bu(2012)는 해외파병의 성과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 Jeon(2011)의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 국제평화활동의 국익증진 효과’, Lee, *et. al.*(2007)의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Kim(2005)의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활동 참여전략’ 등을 들 수 있으나, 개념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을 위주로 한 성과 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군 해외파병활동 성과평가’라는 논문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파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문 중 국민의 82.3%가 해외파병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발판이 된다는 진술에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도움 81.4%, 해외국민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 보호에 도움 78.7%, 한국군 선진화에 도움이 되고 실전경험에 효과 69.6%, 한미동맹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 69.6% 등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Bu(2012)는 논문에서 해외파병을 정치성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군사 기여가 될 수 있어야 더 높은 국제적 평가 및 국위선양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대국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파병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파병이 이루어지고, 이를 본 국민이 해외파병에 대해 더

욱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ong, 2012: 15).

Lee(2012)는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확실하게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처럼 군위주의 파병에서 경찰요원이나 민간 인력들의 평화유지활동 임무투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늘어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 비군사적 파견요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독립적인 평화유지활동센터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있어 국민적지지 부족 및 법·제도적 장치 미흡문제와 범정부차원의 평화유지활동 총괄부서가 없는 것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 관리를 수반한 파병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Kim, 2006).

Ko & Bu(2010)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지지기반을 다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유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제도적 조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유지활동 상황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연구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평화유지활동을 소중한 안보의 자산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군 평화유지활동센터의 조직 발전 및 전문성 활용은 물론 군의 역할 확대나 예비역 전문 인력활용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Lee(2008)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최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과거의 단순한 정전 감시임무에서 치안질서의

유지, 선거관리, 법과 제도의 구축, 지뢰제거, 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 복귀, 인도적 지원, 인권 탄압 감시, 아동 보호, 성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임무로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참여도 군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 민간인, NGO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관·군 통합 평화유지활동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수행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별 업무분장과 예산근거 및 파병요원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평화유지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 범정부차원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위시한 해외파병업무의 조정·총괄하는 조직의 편성과 군인과 더불어 평화유지활동에 합류하게 될 경찰 및 민간전문요원의 파견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Oh, 2011: 291).

Wo, *et. al.*(2011)은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에서 우리는 해외파병 전략의 중점을 군사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급 평화유지활동센터의 설립, 국방협력 차원의 파병 소요증가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완, 군과 함께 공무원, 경찰, 비정부기구의 참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피스코리아를 위한 제언에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파병을 하려면 사전에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ong, 2006: 282).

Song(2006)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에서 미래지향적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제언으로 장차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자주적 통일역량을 비축하는 한편, 언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평

화유지활동과 같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ong, 2012: 45).

Jeon(2011)은 해외파병활동은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 한미동맹관계의 균형발전, 한반도 유사 시 국제적 지원확보, 국제안보 증진과 해외국민 보호, 현지 정부 및 주민의 친한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등 다양한 외교안보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Song, 2006: 22).

Kim(2011)은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외파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군사적 지원 차원을 넘어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도 인도주의적 활동과 더불어 현지개발, 에너지자원협력 등 국익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국방부장관 축사내용, 재인용).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2007)는 UN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투자이다(Jang, *et. al.*, 2012: 74).

Jang(2012)은 전통적 안보위협과 초국가적인 안보위협이 증대되면서 협력적 안보와 인도주의적인 개입 차원에서 국제평화활동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화유지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도적 준비를 하고 필요한 운용체제에 따라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도 국력에 걸맞은 수준의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파병정책의 추진은 물론 해외파병 관련 조직의 정비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Park, 2012: 97).

Bak(2012)은 한국의 평화활동 파병병력 증가현황을 <Table 4>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면 한국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화활동을 펼쳐왔음을 보여주었다.

Yu(2012)는 평화유지활동은 민·관·군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원조 또는 군당국간 교류협력만으로는 파병지역에서 효과적인 지원이 제한될 수

Table 4. Increasing trend of Korean military forces dispatched to peacekeeping activities

Item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UN	258	308	296	474	47	56	488	932	931	929	322
MNF									325	835	1,962
Total	258	308	296	474	47	56	488	932	1,256	1,764	2,284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Total
UN	64	68	29	384	733	741	1218	1526	1200	629	11,633
MNF	4,642	6,735	5,705	2,474	1,095	926	869	960	1,668	380	28,576
Total	4,706	6,803	5,734	2,858	1,828	1,667	2,087	2,486	2,868	1,009	40,209

밖에 없다. 파병지역에 대한 유·무상원조, 개발협력, 교역확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주도로 정부 유관부처 및 기관, 민간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협조회의를 개최하여 파병지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Ryu, 2012: 39).

4.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UN 통제하의 분쟁 예방, 평화조성,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함께 자국의 국가이익 증대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검토를 통해서도 다수의 파병 관련 전문가들은 파병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해 볼 때 파병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위선양 및 국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임무는 국제사회와 UN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 시켜 왔다. 그리고 피파병국가의 분쟁종식 후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국익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걸프전 참전을 통해서도 한국은 원유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장차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굳히게

되었고,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유엔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의 의의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국제사회는 불특정 다수의 위협의 증가로 인해 UN의 회원국인 한국에게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더욱 많은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 증가 예상되는 평화유지활동임무를 현재와 같이 현역자원만으로 계속적으로 파병할 경우에는 본토방호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비군은 1968년 창설²⁾된 이후 89여회의 대(對)침투작전에 참가하여 현역과 함께 무장공비 117명을 사살 하고 생포하는 전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해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으며,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왔다. 그리고 현재도 변함없이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넷째, 국방개혁 추진 및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예비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군의 위상에 걸맞는 평화유지활동 등 예비군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층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동원관계관, 예비군지휘관, 예비군들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신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가안보, 예비군 위상제고, 우수인력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예비군

2) 1968년 4월 1일에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1만여 명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한국은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곱째, 현존하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비군사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비전력만으로 갖가지 위협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여덟째, 미국의 경우 과거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 이라크 등 주요 전쟁 시마다 다수의 예비군을 현역과 함께 파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2차 대전시에는 200만 명, 한국전쟁 시 34만 명, 걸프전 시에는 22만 8천명, 이라크전에도 21여만 명을 동원하여 본토방호는 물론 해외파병에 운영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예비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평화유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예비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위상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인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예비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예비군들이 현역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예비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위상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열째, 파병지역에서의 작전 및 지원임무 수행 경험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발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비군들이 평화유지활동 경험을 축적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안보위협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군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한 번째, 선행 연구검토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과거의 단순한 정전 감시임무에서 치안질서의 유지, 선거

관리, 법과 제도의 구축, 지뢰제거, 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 복귀, 인도적 지원, 인권 탄압 감시, 아동 보호, 성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임무로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현역 군인만을 파병할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 민간인, NGO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두 번째,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글로벌 한국이라는 외교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문제는 단순히 파병부대의 인력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위상제고 및 국가안보를 위한 대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예비군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전력과 상비전력을 통합하는 총체전력으로 출발하게 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Eom, *et. al.*, 2011: 74).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안보환경 유형이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 및 지원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화유지활동과 지원여부 결정과정에서 평화유지활동관련 제도적 장치, 부대유형, 인적구성 유형 등이 조절효과로써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는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안보환경으로 했다. 종속변수는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 등 2가지 변수이며, 조절변수는 평화유지활동관련 제도적 여건과 평화유지활동 유형(부대, 인적구성)이고,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병역이행, 직종 등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들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안보환경 유형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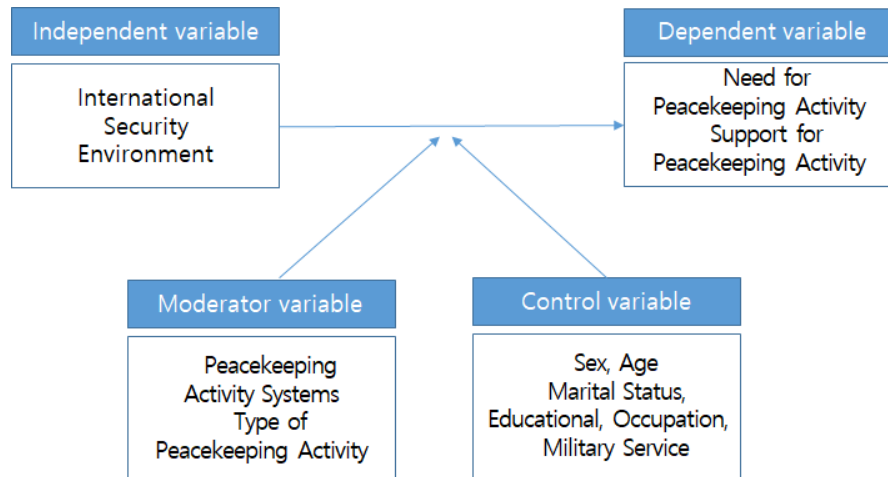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필요성, 안보환경 유형에 따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시 우선 선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파병부대유형,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기대효과 등을 통해 평화유지활동 제도와 평화유지활동 부대유형 및 인적특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의 대상지역을 전북지역의 향토사단인 35사단 소속 전주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훈련 중인 예비군과 예비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육군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인원은 육군 장교 및 부사관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역에서 면접장소에 모인 지원자들과 지원자 부모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본 조사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증분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은 군과 연관된 예비군과 예비군지휘관, 현역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취지 등을 설명하여 응답 및 회수율을 증가시켰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은 조사대상 총 2,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2,11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중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042부를 통계처리 했다.

안보환경 변화는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을 수

립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은 어떤 유형의 안보위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① 국가분쟁, ② 국제테러, ③ 자연재해, ④ 환경오염, ⑤ 기타 등 5점 척도의 Likert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20세기 말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에도 불구하고 안보측면에서의 불안전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의 특징은 과거와 같은 전면전은 감소추세이나 오히려 국지전과 테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진, 해일, 폭설,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환경오염, 영토분쟁, 마약문제 등 불특정 다수의 위협들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인 군사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 상비군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가는 등 전반적인 안보환경 변화는 상비군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예비군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종속변수는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시 지원여부이다.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필요하다, ⑤ 전혀 필

요하지 않다 등으로 지원여부는 ① 적극 지원하겠다, ② 지원을 고민해보겠다, ③ 별 생각이 없다, ④ 지원하지 않겠다, ⑤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 등으로 5점 척도의 Likert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했다. 현재 현역들의 평화유지활동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은 법적근거의 미비와 국민정서,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선행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내외의 과거 역사 속에 파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예비군들이 현역과 함께 해외에 파병되어 현역 못지않은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예비군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없지만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병역, 직종, 결혼여부,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변수별 인식차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표본 선정에 있어 모집단은 예비군과 예비군지휘관, 현역(동원업무관계관)과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등 총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예비군을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이며, 예비군지휘관은 평소에 예비군들을 관리하는 핵심지휘관이기 때문이다. 동원관계관은 동원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본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했다. 아래 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20명으로 50%씩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31~40세 650명(31.9%), 21~30세 540명(26.5%), 20세 이하 460명(22.5%), 41세 이상이 390명(19.1%)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250명(61.3%), 미혼이 790명(38.7%)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이 775명(3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졸 605명(29.7%), 대학원졸 430명(21.1%), 전문대졸 230명(11.3%) 등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직업은 군인 800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비 군인 중에서는 사무직 430명(21.1%), 서비스직 270명(13.2%), 전문직 205명(10.0%), 무직 185명(9.1%), 생산직 150명(7.4%) 등으로 나타났다. 병역여부와 관련해서는 군 미필자 685명(33.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장교 720명(35.3%), 부사관 310명(15.2%), 예비군 230명(11.3%), 병 95명(4.7%) 등의 분포를 보였다.

IV. 조절효과 분석결과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과 평화유지활동 시 지원정도에 영향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020	50.0
	Female	1,020	50.0
Age	20 or less	460	22.5
	21-30	540	26.5
	31-40	650	31.9
	41-50	390	19.1
Marital Status	Married	1,250	61.3
	Unmarried	790	38.7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605	29.7
	College	230	11.3
	University	775	38.0
	Graduate	430	21.1
Occupation	Unemployed	185	9.1
	Manufacturing	150	7.4
	Service	270	13.2
	Blue Color	430	21.1
	Profession	205	10.0
	Soldier	800	39.2
Military Service	Lower Enlisted Rank	95	4.7
	Officer	720	35.3
	Higher Enlisted Rank	310	15.2
	Unfulfilled	685	33.6
	Reserve Force	230	11.3

을 미치는 과정에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선행조건들과 평화유지활동부대의 유형 및 인적특성이 어떤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대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선행조건들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앞서 통제변수들로 성별, 연령집단별, 결혼유무별, 학력별, 직업별, 병역이행여부별 등의 인적특성변수들에 대해 모두 더미변수로 변환시켰고, 독립변수인 평화유지활동 환경변화 문항도 더미변수화 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선행조건 문항들도 더미변수화한 후, 독립변수와 곱하는 방법으로 조절변수를 생성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들인 인적특성 변수들만을 투입시켜 분석하였다. 투입되는 변수가 더미변수인 관계로 성별집단에서는 여성집단, 연령별집단에서는 20세 미만집단,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집단, 학년집단에서는 고졸집단, 직업집단에서는 미취업자 집단, 그리고 병역이행여부집단에서는 미필자 집단을 각각 기준변수로 삼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일반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독립변수와 함께 추가로 투입되는 조절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분석에서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1단계에서 평화유지활동 환경변화 독립변수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2단계에서 이들의 조절변수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1단계 분석에서는 인적특성 변수로 구성된 통제효과만을 살펴본 것으로 약 8.4%의 모델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자체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42$, $p<.01$).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해 4.8%로 늘어난 13.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델 적합도 역시 유효하였다($F=14.494$, $P<.01$). 1단계의 인적특성 변수 중 유의한 것으로 살펴보면, 전문대졸자는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beta = -.058$ 의 영향을 미쳐 고졸자에 비해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직종별에서는 사무직과 전문직은 각각 $\beta = .132$, $\beta = .100$ 으로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병역이행여부별 문항과 관련해서는 병($\beta = -.091$)과 예비군($\beta = -.160$)은 미필자에 비해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을 훨씬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단계 분석에 추가로 투입된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각각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 변화요인 중 국가분쟁과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선행조건 중에서 안보저변확대 문항은 기준변수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테러와 자연재해는 $\beta = .093$ 과 $\beta = .108$ 의 영향력으로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화유지활동 선행조건 중 법적근거는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공감대와 보상조치 마련은 파병 필요성에 $\beta = -.195$, $\beta = -.150$ 등의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후관리는 $\beta = .076$ 으로 파병 필요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6.4% 더 올라가 1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책마련($\beta = .160$)이 가장 크게 파병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법적장치마련($\beta = .124$), 안정장치 마련($\beta = .010$) 등이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테러와 관련해서는 모든 조절 상호작용항이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사후관리대책($\beta = .119$)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안정장치마련($\beta = .111$), 국민공감대

형성($\beta = .102$), 법적 장치마련($\beta = .046$) 등의 순으로 와 관련해서는 법적장치마련($\beta = .213$)이 가장 영향력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안전장치마련(β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dispatch requirements on need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3.547		20.514	.000	3.712		20.375	.000	3.344		17.576	.000
Male	-.121	-.055	-1.771	.077	-.023	-.010	-.333	.739	-.032	-.014	-.469	.639
Age: 21-30	-.035	-.014	-.342	.733	-.127	-.051	-1.262	.207	-.125	-.050	-1.245	.213
Age: 31-40	-.256	-.108	-2.291	.022	-.291	-.123	-2.635	.008	-.237	-.100	-2.131	.033
Age: 41-50	.026	.009	.226	.821	-.029	-.011	-.256	.798	.033	.012	.285	.776
Married	.139	.062	1.368	.171	.157	.069	1.567	.117	.136	.060	1.339	.181
College	-.203	-.058	-1.972	.049	-.248	-.071	-2.444	.015	-.176	-.050	-1.728	.084
University	.047	.020	.519	.604	-.027	-.012	-.300	.764	.013	.006	.144	.885
Graduate School	.216	.080	1.887	.059	.122	.045	1.054	.292	.180	.067	1.577	.115
Manufacturing	.106	.025	.861	.390	.081	.019	.661	.509	-.019	-.004	-.150	.880
Service	-.045	-.014	-.417	.676	-.020	-.006	-.189	.850	.005	.001	.044	.965
Blue Color	.357	.132	3.556	.000	.449	.166	4.519	.000	.395	.146	3.926	.000
Profession	.366	.100	2.931	.003	.320	.087	2.522	.012	.278	.076	2.184	.029
Soldier	.188	.083	1.676	.094	.222	.098	1.947	.052	.179	.079	1.554	.120
Lower Enlisted Rank	-.476	-.091	-2.830	.005	-.578	-.111	-3.496	.000	-.555	-.106	-3.325	.001
Officer	.036	.016	.294	.769	-.090	-.039	-.750	.453	-.151	-.065	-1.263	.207
Higher Enlisted Rank	-.002	-.001	-.013	.990	-.135	-.044	-1.037	.300	-.222	-.072	-1.703	.089
Reserve Force	-.374	-.160	-3.002	.003	-.369	-.158	-3.004	.003	-.414	-.177	-3.308	.001
International Terror (IT)					.234	.093	4.002	.000				
National Disaster (ND)					.253	.108	4.449	.000				
Legal Basis (LB)					-.122	-.054	-1.406	.160				
National Consensus (NC)					-.461	-.195	-5.603	.000				
Compensation Action (CA)					-.519	-.150	-5.038	.000				
Follow-up Management (FM)					.332	.076	2.716	.007				
NaD * LB									.383	.124	4.231	.000
NaD * NC									-.146	-.045	-1.468	.142
NaD * SM									.541	.101	4.073	.000
NaD * FM									.968	.160	6.539	.000
IT * LB									.174	.046	1.752	.080
IT * NC									.397	.102	3.622	.000
IT * SM									.793	.111	4.696	.000
IT * FM									.950	.119	5.311	.000
ND * LB									.703	.213	7.512	.000
ND * NC									.119	.032	1.098	.272
ND * SM									.478	.094	3.697	.000
ND * FM									.584	.064	2.843	.005
adj- R^2		.084				.132				.148		
F		11.942				14.494				13.182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SM: Safety Measure

=.094), 사후관리대책마련($\beta = .0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평화유지활동 시 지원정도로 하였을 경우, 1단계 분석에서는 인적특성 변수로 구성된 통제요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dispatch requirements on support level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2.950		15.214	.000	2.944		14.089	.000	2.406		11.123	.000
Male	.044	.017	.570	.569	.077	.031	.992	.322	.089	.035	1.149	.251
Age: 21-30	.288	.101	2.527	.012	.278	.097	2.413	.016	.352	.123	3.075	.002
Age: 31-40	.168	.062	1.338	.181	.215	.080	1.701	.089	.334	.123	2.643	.008
Age: 41-50	.532	.166	4.134	.000	.560	.175	4.245	.000	.640	.200	4.839	.000
Married	.032	.012	.278	.781	-.018	-.007	-.158	.875	-.080	-.031	-.700	.484
College	.406	.102	3.506	.000	.405	.102	3.483	.001	.467	.117	4.048	.000
University	.668	.257	6.645	.000	.693	.267	6.686	.000	.728	.280	7.121	.000
Graduate School	.475	.154	3.709	.000	.514	.167	3.889	.000	.566	.183	4.349	.000
Manufacturing	.298	.062	2.147	.032	.343	.071	2.439	.015	.327	.068	2.320	.020
Service	-.305	-.082	-2.529	.012	-.255	-.069	-2.095	.036	-.179	-.048	-1.490	.136
Blue Color	.178	.058	1.578	.115	.223	.072	1.962	.050	.252	.082	2.205	.028
Profession	.013	.003	.096	.924	-.006	-.001	-.043	.966	.050	.012	.348	.728
Soldier	.223	.087	1.772	.077	.279	.108	2.135	.033	.324	.126	2.479	.013
Lower Enlisted Rank	-.267	-.045	-1.418	.156	-.277	-.046	-1.460	.144	-.196	-.033	-1.034	.301
Officer	-.013	-.005	-.094	.925	-.042	-.016	-.306	.760	-.078	-.030	-.574	.566
Higher Enlisted Rank	-.243	-.069	-1.634	.102	-.263	-.075	-1.762	.078	-.348	-.099	-2.346	.019
Reserve Force	.082	.031	.589	.556	.090	.034	.635	.525	.145	.054	1.017	.309
International Terror (IT)					-.113	-.039	-1.691	.091				
National Disaster (ND)					.076	.028	1.157	.247				
Legal Basis (LB)					-.017	-.007	-.175	.861				
National Consensus (NC)					-.046	-.017	-.491	.624				
Compensation Action (CA)					-.304	-.077	-2.575	.010				
Follow-up Management (FM)					.252	.051	1.800	.072				
NaD * LB									.482	.136	4.686	.000
NaD * NC									.323	.087	2.868	.004
NaD * SM									.547	.089	3.625	.000
NaD * FM									.950	.137	5.644	.000
IT * LB									.010	.002	.091	.928
IT * NC									.455	.102	3.651	.000
IT * SM									.026	.003	.136	.892
IT * FM									.691	.076	3.398	.001
ND * LB									.778	.206	7.309	.000
ND * NC									.350	.083	2.845	.004
ND * SM									.549	.094	3.733	.000
ND * FM									.010	.001	.042	.967
adj- R^2		.118				.126				.156		
F		16.998				13.795				14.029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SM: Safety Measure

과만을 살펴본 것으로 약 11.8%의 모델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자체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6.998$, $p<.01$).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해 0.8%로 늘어난 12.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델 적합도 역시 유효하였다($F=13.795$, $P<.01$). 1단계의 인적특성 변수 중 유의한 것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20대($\beta = .101$)와 40세 이상 집단($\beta = .166$)은 파병 시 지원정도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 집단이 $\beta = .257$ 로 지원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집단이 $\beta = .154$, 전문대졸 집단 $\beta = .102$ 등이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직은 $\beta = .062$ 로 파병 시 지원정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직은 $\beta = -.082$ 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이행여부 집단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집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단계 분석에 추가로 투입된 독립변수로 국제테러, 자연재해 등이 투입되었지만 파병 시 지원정도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평화유지활동 선결장치와 관련해서는 보상조치마련만이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beta = -.077$ 로 부(-)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했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3.8% 더 올라가 15.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책마련($\beta = .137$)과 법적장치마련($\beta = .136$)이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비교적 높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공감대형성($\beta = .087$)과 안전장치마련($\beta = .089$)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테러와 관련해서는 국민공감대형성($\beta = .102$)과 사후관리대책마련($\beta = .076$) 등 2항목만이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법적장치마련($\beta = .206$)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안전장치마련($\beta = .094$), 국민공감대형성($\beta = .083$) 등이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를 국가분쟁, 국제테러, 자연재해 등의 안보환경관련 항목을, 그리고 조절변수를 평화유지활동 부대의 형태로 현역과 동일한 형태의 부대,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종속변수로 파병 필요성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단계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며, 2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안보저변확대 문항과 조절변수 중 전투부대 유형은 기준변수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테러와 자연재해는 $\beta = .107$ 과 $\beta = .116$ 의 영향력으로 기준변수인 국가분쟁보다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 중에서 현역동일부대 유형과 전투지원부대 유형은 각각 $\beta = .433$, $\beta = .243$ 의 영향력으로 전투부대 유형에 비해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했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15.5% 더 올라가 23.9%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는 대신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497$)이나 전투지원부대($\beta = .424$)가 전투부대 유형($\beta = .088$)보다 훨씬 더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테러와 관련해서도 전투부대 유형($\beta = .255$)보다 전투지원부대 유형($\beta = .422$)이나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407$)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535$)과 전투지원부대 유형($\beta = .416$) 등이 전투부대 유형($\beta = .246$)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대유형과 관련해서는 파병을 하는 경우 국제환경변화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전투부대 형태보다는 현역과 동일한 부대유형이나 전투지원부대 유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독립변수를 국가분쟁, 국제테러, 자연재해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troop type on need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3.547		20.514	.000	3.221		18.965	.000	2.689		15.683	.000
Male	-.121	-.055	-1.771	.077	-.105	-.048	-1.612	.107	-.075	-.034	-1.185	.236
Age: 21-30	-.035	-.014	-.342	.733	-.121	-.048	-1.250	.211	-.115	-.046	-1.231	.218
Age: 31-40	-.256	-.108	-2.291	.022	-.286	-.121	-2.681	.007	-.334	-.141	-3.202	.001
Age: 41-50	.026	.009	.226	.821	-.094	-.033	-.845	.398	-.103	-.037	-.953	.341
Married	.139	.062	1.368	.171	.194	.086	1.986	.047	.223	.099	2.377	.018
College	-.203	-.058	-1.972	.049	-.432	-.124	-4.345	.000	-.446	-.128	-4.611	.000
University	.047	.020	.519	.604	-.089	-.039	-1.034	.301	-.166	-.073	-2.003	.045
Graduate School	.216	.080	1.887	.059	.089	.033	.806	.421	-.013	-.005	-.119	.906
Manufacturing	.106	.025	.861	.390	-.021	-.005	-.172	.863	-.126	-.030	-1.073	.283
Service	-.045	-.014	-.417	.676	-.244	-.075	-2.339	.019	-.175	-.054	-1.746	.081
Blue Color	.357	.132	3.556	.000	.090	.033	.922	.357	.033	.012	.348	.728
Profession	.366	.100	2.931	.003	.240	.065	2.009	.045	.232	.063	2.017	.044
Soldier	.188	.083	1.676	.094	-.084	-.037	-.761	.447	-.081	-.036	-.762	.446
Lower Enlisted Rank	-.476	-.091	-2.830	.005	-.670	-.128	-4.171	.000	-.829	-.158	-5.332	.000
Officer	.036	.016	.294	.769	.002	.001	.021	.983	.047	.020	.420	.674
Higher Enlisted Rank	-.002	-.001	-.013	.990	.017	.005	.131	.896	.029	.009	.237	.813
Reserve Force	-.374	-.160	-3.002	.003	-.686	-.294	-5.689	.000	-.565	-.242	-4.892	.000
International Terror (IT)					.269	.107	4.705	.000				
National Disaster (ND)					.272	.116	4.895	.000				
Army Unit					1.004	.433	13.404	.000				
Combat Support Troop					.535	.243	7.737	.000				
NaD * Army Unit									1.548	.497	15.664	.000
NaD * Combat Troop									.600	.088	3.779	.000
NaD * Combat Support									1.165	.424	12.200	.000
IT * Army Unit									1.695	.407	14.845	.000
IT * Combat Troop									1.665	.255	10.925	.000
IT * Combat Support									1.341	.422	13.291	.000
ND * Army Unit									1.829	.535	17.149	.000
ND * Combat Troop									1.956	.246	11.093	.000
ND * Combat Support									1.222	.416	12.549	.000
adj- R^2		.084				.172				.239		
F		11.942				21.105				25.587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SM: Safety Measure

등의 안보환경관련 항목을, 그리고 조절변수를 평화유지활동부대의 형태로 현역과 동일한 형태의 부대,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종속변수로 평화유지활동 시 지원정도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1단계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며, 2

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안보저변확대 문항과 조절변수 중 전투부대 유형은 기준변수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단계 분석결과를 보면, 국제테러에 대해서는 $\beta = -.028$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화유지활동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beta = .026$ 으로 파병지원에 긍정적인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troop type on support level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2.950		15.214	.000	2.361		13.057	.000	1.188		6.876	.000
Male	.044	.017	.570	.569	.054	.022	.779	.436	.112	.045	1.770	.077
Age: 21-30	.288	.101	2.527	.012	.132	.046	1.280	.201	.128	.045	1.367	.172
Age: 31-40	.168	.062	1.338	.181	.220	.081	1.931	.054	.093	.034	.882	.378
Age: 41-50	.532	.166	4.134	.000	.447	.140	3.785	.000	.370	.116	3.388	.001
Married	.032	.012	.278	.781	.048	.019	.467	.640	.153	.059	1.614	.107
College	.406	.102	3.506	.000	.088	.022	.833	.405	.121	.030	1.244	.214
University	.668	.257	6.645	.000	.458	.176	4.998	.000	.343	.132	4.111	.000
Graduate School	.475	.154	3.709	.000	.276	.089	2.362	.018	.154	.050	1.436	.151
Manufacturing	.298	.062	2.147	.032	.178	.037	1.397	.163	-.124	-.026	-1.054	.292
Service	-.305	-.082	-2.529	.012	-.558	-.150	-5.033	.000	-.437	-.118	-4.334	.000
Blue Color	.178	.058	1.578	.115	-.183	-.059	-1.750	.080	-.272	-.088	-2.836	.005
Profession	.013	.003	.096	.924	-.220	-.052	-1.728	.084	-.209	-.050	-1.806	.071
Soldier	.223	.087	1.772	.077	-.234	-.091	-1.995	.046	-.172	-.067	-1.612	.107
Lower Enlisted Rank	-.267	-.045	-1.418	.156	-.451	-.075	-2.636	.008	-.742	-.124	-4.739	.000
Officer	-.013	-.005	-.094	.925	-.028	-.011	-.225	.822	-.024	-.009	-.217	.828
Higher Enlisted Rank	-.243	-.069	-1.634	.102	-.086	-.024	-.636	.525	-.163	-.047	-1.325	.185
Reserve Force	.082	.031	.589	.556	-.352	-.132	-2.742	.006	-.139	-.052	-1.194	.233
International Terror (IT)					-.082	-.028	-1.345	.179				
National Disaster (ND)					.069	.026	1.163	.245				
Army Unit					1.692	.639	21.218	.000				
Combat Support Troop					1.260	.500	17.111	.000				
NaD * Army Unit									2.800	.787	28.118	.000
NaD * Combat Troop									2.277	.293	14.222	.000
NaD * Combat Support									2.507	.798	26.056	.000
IT * Army Unit									2.708	.570	23.536	.000
IT * Combat Troop									2.311	.310	15.044	.000
IT * Combat Support									2.286	.629	22.472	.000
ND * Army Unit									2.932	.750	27.271	.000
ND * Combat Troop									2.677	.295	15.064	.000
ND * Combat Support									2.451	.729	24.963	.000
adj-R ²	.118				.281				.408			
F	16.998				38.936				55.022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파병부대 유형 중에서 현역동일부대 유형과 전투지원부대 유형은 각각 $\beta = .639$, $\beta = .500$ 의 영향력으로 전투부대 유형에 비해 파병 필요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했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29.0% 더 올라가 40.8%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는 대신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497$)이나 전투지원부대($\beta = .424$)가 전투부대 유형($\beta = .088$)보다 훨씬 더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테러와 관련해서도 전투부대 유형($\beta = .255$)보다 전투지원부대 유형($\beta = .422$)이나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407$)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현역동일부대 유형($\beta = .535$)과 전투지원부대 유형($\beta = .416$) 등이 전투부대 유형($\beta = .246$)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대유형과 관련해서는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경우 국제환경변화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전투부대 형태보다는 현역과 동일한 부대유형이나 전투지원부대 유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를 국가분쟁, 국제테러, 자연재해 등의 안보환경관련 항목을, 그리고 조절변수를 파병부대의 형태로 현역단독부대, 현역과 예비군의 혼합부대, 예비군 단독부대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종속변수로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1단계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며, 2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안보저변확대 문항과 조절변수 중 현역단독편성부대 유형은 기준변

수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테러와 자연재해는 $\beta = .082$ 와 $\beta = .088$ 의 영향력으로 기준변수인 국가분쟁보다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 중에서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은 $\beta = .185$ 로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비군 단독편성 유형은 $\beta = -.210$ 으로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했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19.3% 더 올라가 27.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는 대신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563$)이 제일 유의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현역단독편성($\beta = .279$)이 다소 낮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군 단독편성 유형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테러와 관련해서도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567$)이 제일 유의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현역단독편성($\beta = .275$)이 다소 낮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군 단독편성 유형은 역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581$)이 제일 유의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현역단독편성($\beta = .320$)이 다소 낮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군 단독편성은 오히려 $\beta = -.061$ 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편성유형과 관련해서는 국제환경변화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예비군과 현역의 혼합편성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현역과 동일한 부대편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군 단독편성 유형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독립변수를 국가분쟁, 국제테러, 자연재해 등의 안보환경관련 항목을, 그리고 조절변수를 인적구성에 따른 부대편성으로 현역 단독편성과 예비군과 현역의 혼합편성, 그리고 예비군 단독편성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종속변수로 평화유지활동 시 지원정도로 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1단계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위와 동일하며, 2단계 분석에서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안보저변확대 문항과 조절변수 중 현역 단독편성 유형은 기준변수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단계 분석결과를 보면, 국제테러에 대해 $\beta = -.053$ 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personnel composition on need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3.547		20.514	.000	3.304		19.990	.000	2.546		15.374	.000
Male	-.121	-.055	-1.771	.077	-.153	-.069	-2.365	.018	-.135	-.061	-2.193	.028
Age: 21-30	-.035	-.014	-.342	.733	-.083	-.033	-.872	.383	-.099	-.040	-1.097	.273
Age: 31-40	-.256	-.108	-2.291	.022	-.342	-.145	-3.216	.001	-.319	-.135	-3.151	.002
Age: 41-50	.026	.009	.226	.821	-.032	-.012	-.292	.770	.026	.009	.249	.803
Married	.139	.062	1.368	.171	.398	.176	4.070	.000	.363	.160	3.914	.000
College	-.203	-.058	-1.972	.049	-.347	-.099	-3.556	.000	-.386	-.111	-4.128	.000
University	.047	.020	.519	.604	-.068	-.030	-.807	.420	-.206	-.091	-2.553	.011
Graduate School	.216	.080	1.887	.059	.051	.019	.475	.635	-.048	-.018	-.467	.640
Manufacturing	.106	.025	.861	.390	-.009	-.002	-.077	.939	-.282	-.067	-2.490	.013
Service	-.045	-.014	-.417	.676	-.091	-.028	-.897	.370	-.083	-.026	-.867	.386
Blue Color	.357	.132	3.556	.000	.162	.060	1.673	.095	.074	.027	.806	.420
Profession	.366	.100	2.931	.003	.171	.047	1.428	.153	.165	.045	1.455	.146
Soldier	.188	.083	1.676	.094	-.039	-.017	-.352	.725	-.047	-.021	-.454	.650
Lower Enlisted Rank	-.476	-.091	-2.830	.005	-.501	-.096	-3.161	.002	-.698	-.133	-4.638	.000
Officer	.036	.016	.294	.769	.056	.024	.489	.625	.053	.023	.488	.626
Higher Enlisted Rank	-.002	-.001	-.013	.990	.135	.044	1.077	.282	.171	.056	1.437	.151
Reserve Force	-.374	-.160	-3.002	.003	-.481	-.206	-4.075	.000	-.440	-.189	-3.931	.000
International Terror(IT)					.206	.082	3.655	.000				
National Disaster(ND)					.207	.088	3.732	.000				
Mix					.467	.185	8.184	.000				
Only Reserve					-1.155	-.210	-9.431	.000				
NaD * In Service									1.362	.279	11.266	.000
NaD * Mix									1.353	.563	15.312	.000
NaD * Reserve									-.045	-.006	-.275	.784
IT * In Service									1.793	.275	11.922	.000
IT * Mix									1.554	.567	16.725	.000
IT * Reserve									-.106	-.009	-.465	.642
ND * In Service									1.446	.320	12.357	.000
ND * Mix									1.515	.581	16.615	.000
ND * Reserve									-.686	-.061	-2.919	.004
adj-R ²	.084				.191				.277			
F	11.942				23.893				31.007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타나 평화유지활동지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조절변수인 인적편성 유형 중에서 예비군과 현역의 혼합편성은 $\beta = .365$ 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비군 단독편성 형태는 $\beta = -.109$ 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오히려 평화유지활동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가 투입된 독립변수에 조

절변수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했다. 그 결과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37.0% 더 올라가 48.8%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부득이하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는 대신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국가분쟁에 대해서는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1.025$)이 제일 유의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Table 11. Moderating effect of personnel composition on support level for peacekeeping activity

	Step 1				Step 2				Step 3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①(B)	②(β)	t	③
(Coefficient)	2,950		15,214	.000	2,591		14,494	.000	.989		6,213	.000
Male	.044	.017	.570	.569	-.011	-.004	-.155	.877	.049	.019	.821	.412
Age: 21-30	.288	.101	2,527	.012	.165	.058	1,597	.110	.148	.052	1,697	.090
Age: 31-40	.168	.062	1,338	.181	-.005	-.002	-.042	.966	.039	.014	.400	.689
Age: 41-50	.532	.166	4,134	.000	.380	.119	3,162	.002	.490	.153	4,816	.000
Married	.032	.012	.278	.781	.390	.151	3,690	.000	.311	.120	3,490	.000
College	.406	.102	3,506	.000	.264	.066	2,508	.012	.209	.052	2,324	.020
University	.668	.257	6,645	.000	.573	.221	6,258	.000	.325	.125	4,194	.000
Graduate School	.475	.154	3,709	.000	.295	.095	2,514	.012	.133	.043	1,343	.179
Manufacturing	.298	.062	2,147	.032	.181	.038	1,418	.156	-.234	-.049	-2,149	.032
Service	-.305	-.082	-2,529	.012	-.425	-.114	-3,853	.000	-.381	-.103	-4,114	.000
Blue Color	.178	.058	1,578	.115	-.185	-.060	-1,773	.076	-.269	-.087	-3,054	.002
Profession	.013	.003	.096	.924	-.444	-.106	-3,422	.001	-.410	-.098	-3,753	.000
Soldier	.223	.087	1,772	.077	-.269	-.104	-2,267	.023	-.232	-.090	-2,333	.020
Lower Enlisted Rank	-.267	-.045	-1,418	.156	-.279	-.047	-1,629	.104	-.599	-.100	-4,138	.000
Officer	-.013	-.005	-.094	.925	.046	.018	.372	.710	.019	.007	.182	.855
Higher Enlisted Rank	-.243	-.069	-1,634	.102	-.029	-.008	-.212	.832	.007	.002	.065	.948
Reserve Force	.082	.031	.589	.556	-.121	-.045	-.948	.343	-.055	-.021	-.514	.607
International Terror(IT)					-.153	-.053	-2,509	.012				
National Disaster(ND)					.048	.018	.799	.425				
Mix					1,050	.365	17,024	.000				
Only Reserve					-.689	-.109	-5,197	.000				
NaD * In Service									2,659	.477	22,878	.000
NaD * Mix									2,813	1,025	33,117	.000
NaD * Reserve									1,539	.179	9,802	.000
IT * In Service									2,353	.316	16,274	.000
IT * Mix									2,701	.863	30,242	.000
IT * Reserve									.600	.047	2,750	.006
ND * In Service									2,767	.537	24,598	.000
ND * Mix									2,772	.930	31,609	.000
ND * Reserve									.257	.020	1,136	.256
adj- R^2	.118				.275				.488			
F	16,998				37,831				75,754			
p	.000				.000				.000			

Note) ①: Unstandardized Coefficient; ②: Standardized Coefficient; ③: Significance Probability; NaD: National Dispute;

현역 단독편성($\beta = .477$), 예비군 단독편성($\beta = .179$) 등의 순으로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테러와 관련해서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863$)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현역 단독편성($\beta = .316$), 예비군단독편성($\beta = .047$) 등의 순으로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현역과 예비군 혼합편성 유형($\beta = .930$)이 제일 유의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현역단독편성($\beta = .537$)이 다소 낮은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군 단독편성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위 분석결과와 같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유지 활동 결정과정에서 파병부대 유형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화유지활동부대 형태는 전투부대보다는 전투지원부대가 평화유지활동에 더 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필요성 결정과정에서 평화유지활동부대 인적구성 형태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예비군 단독 편성부대 유형보다는 현역 단독으로 편성한 부대나 예비군과 현역이 혼합하여 편성한 부대 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미치는 분석에서는 국가분쟁과 국제테러, 자연재해 모두 예비군과 현역이 혼합하여 편성한 부대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이다.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DMZ 목함지뢰 폭파사건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도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등 불특정 다수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을 저하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역자원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국제사회는 경제수준과 국가위상에 맞게 국제평화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역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① 헌법 제5조 및 제60조②항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의 파병대상에 예비군까지 포함하는 방법으로 국군(각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구성)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범주를 군인 및 예비군으로 구성, ② 국군조직법상에 예비군도 군인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현역과 동일한 위치에서 해외파병에 예비군을 포함, ③ 부분동원 시 예비군 활용 범위를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부분동원 시 명시되어 있는 우선동원 대상부대에 해외파병도 포함, ④ 군인사법 제2조(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예비역’을 ‘군인’ 신분으로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예비군 파병대상자 선발과 파병 전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파병대상자 선발은 예비군 파병소요 발생 시 전국적으로 지원자를 공고하여 자원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정해진 규정대로 공정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파병 전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예비군 조직에 ‘예비군파병지원부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예비군 파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넷째, 예비군 파병분야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예비군들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공병, 수송, 통신, 정비, 의료, 헌병, 조리, 간호, 통역, 현지 안내요원, 특수 장비 운영 및 정비요원, 전·사상자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 전문요원, 현지 기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상 전문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전문가, 임무수행 간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장 공포와 심리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전문 치료가, 파병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대민활동 전문가, 건강관리 전문가, 현지에서 예상되는 각종 특수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약업무전문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 예비군에 대한 보상과 사후관리 대책 마련, 파병과 관련된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예비군 모집 및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발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Eom, Young Ho, et. al. 2011. *Study on Reserve Service System*. Institute of Defense and Management.
- Heo, Nam Seong, et. al. 2002. *Measure to Expand International Role of Korean Military Force*. National Assembly Press.
- Jang, Sam Yeol, et. al. 2012.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Overseas Peacekeeping Activities*.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 Jeong, Won Young. 2003. *Foreign Mobilization System*. Institute for Local Defense.
- Jeong, Won Young. 2009. *Mobilization Administratio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Press.
- Jin, Byeong Guk. 2004. *History of Military Mobilization of US Army*. Prime Minister's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 Kim, Beom Seok. 2002. *A Study on Pattern of Korean Participation in Peacekeeping Activiti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Chank Won. 2010.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Reserve Force Exercise according to Change in Security Environment*.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 Kim, Dong Seong. 2005. *A Study on UN Peacekeeping Activities*.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Kim, Haeng Bok. 2005. *Historical Lessons from Overseas Dispatch & Significance of Military Dispatch to Iraq*.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 Kim, Yeol Su. 2006.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Peacekeeping Center*. PKO Center.
- Kim, Yeol Su. 2006. *A Study on Korean Peacekeeping Activities: Review & Perspectiv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 Kim, Young Tae. 1996. *Challenges of Korean PKO*. National Assembly Press.
- Ko, Seong Yoon, et. al. 2011. *A Study on Developmental Measure for Fast Dispatch*. Institute for Security Affairs, Korean Defense University.
-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3. *Gulf Wa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6. *Vietnam Dispatches and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0. *Defense White Paper*. Jeong-gyeong Media Group.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2. *Development of Military Mobilization System*.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4. *Military Mobiliza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7.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0. *Resource Book of 6th Seminar on PKO Develop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1. *Resource Book of 7th Seminar on PKO Develop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2. *History of and Lessons from UN PKO*.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Korean Defense Daily. 2012.07.26. <http://www.peacekeeping.go.kr>.
- Lee, Sang Wook. 2016. *A Relative Evaluation of Policy Determinants of Korean Overseas Dispatch*. Ph.D.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Medical Iraq Peaceful Reconstruction Division, Medical Battalion, 1st Team. 2004. *Report on Iraq Free Operation: May. 21 - Nov. 1, 2004*. In Joint Forces Staff Colleg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ed.).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Oh, Jae Bok. 2000. A Study o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 Focused on the Case of East Timo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ark, Hyung Gyu. 2012. A Study on Continuous Support for Overseas Dispatch Troop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Park, Seong Sil. 2004. A Study on, Korean Peacekeeping Activitie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Park, Soon Hyang. 2012.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Military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PKO Center.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2008. *40 Years of History of Overseas Dispatches*.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2009. *Cases of Successful Command & Excellent Article to Eommemorate 41st Anniversary Day for Reserve Force*. Army Press.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1998. *History of Korean Military Dispatches for Peacekeeping Activities*.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Ryu, Byeong Seon. 2002. A Study on Decision on Korean Military Dispatch.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yu, Jae Ik. 2012. *20 Years of History of Korean Overseas Peacekeeping Activities*.

Seo, In Hwan. 2003. *History of Korean Dispatch*.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Seo-Heui Troop 1st Team. 2003. *Report on Iraq Free Operation: May. 11 - Oct. 23, 2003*. In Joint Forces Staff Colleg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ed.).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Song, Seung Jong. 2006. *Understanding of UN Peacekeeping Activities*. Yeongyeong Press.

Song, Young Geun. 2012. *Achievements and Future of Korean Overseas Dispatch*.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고승윤 외. 2011. 빠른 파병을 위한 발전적 조치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군사연구소. 1996.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2. UN PKO 역사와 교훈.

국방대학교. 2004. 국제평화유지활동.

국방대학원. 2002. 병력동원 제도발전.

국방부. 2008. 향토예비군 40년지.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일보. 2012년 7월 26일자.

군사편찬연구소. 1993. 걸프전쟁.

김동승. 2005. UN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범식. 2002. 한국군의 평화유지 참여양상: 대대급 파병부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열수. 2006. 국가급 평화활동 센터 설립방안. 제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김열수. 2006. 한국군의 평화활동: 회고와 전망. 해외파병사연구총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김영태. 1996. 한국군 PKO의 과제.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분석실.

김찬권. 2010.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행복. 2005. 해외파병의 역사적 교훈과 이라크 파병의 의의. 합참.

남승희. 2002.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 방안. 국회 언론(보도).

박성실. 2004. 한국군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향. 2012.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 준비 및 실시. PKO Center.

박형규. 2012. 해외파병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지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인한. 2003. 한민족 역대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희 부대 1차 (파병)팀. 2003. 이라크 자유 운영에 관한 보고 (5/11-10/23). 연합/합동 참모대학. 국방대학교.

송승중. 2006. UN 평화유지 활동의 이해. 영영출판부.

송영근. 2012. 한국의 해외파병활동 성과 그리고 미래.

엄영호 외. 2011. 예비역복무제도 연구.

- 오재복. 2000.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동티모르 사건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병선. 2002.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재익. 2012. 대한민국 국제평화유지활동 20년 발자취.
- 육군본부. 2009. 제41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공모 우수논문 및 지휘성공사례집. 6.
-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의료 사단. 의무사단 1차 팀. 2004. 약 6개월여 기간 동안의 이라크 자유 운영에 관한 보고 (5/21~11/1). 연합/합동 참모대학. 국방대학교.
- 이상욱. 2016.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정책 결정요인의 비교 평가(분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삼열 외. 2012.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 준비 및 실시.
- 정원영. 2009. 동원행정론. 한국국방연구원.
- 진병국. 2004. 미 군사력 동원사. 국무총리의 국가 비상대책 위원회.
- 한국국방대학교. 2010. 평화유지활동 발전에 관한 6차 세미나 북(Resource Book). 국방대학교 출판부.
- 한국국방대학교. 2011. 평화유지활동 발전에 관한 7차 세미나 북(Resource Book). 국방대학교 출판부.
- 합동참모본부. 1998. 한국군 평화유지활동(PKO) 파병사.
- 허남성 외. 2002.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 평화유지활동 중심으로.

Received: Dec. 28, 2017 / Revised: Jan. 23, 2018 / Accepted: Jan. 29, 2018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민인식 조절효과 연구

국문초록 한국은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견하여 정전감시, 재건지원, 대(對)해적 작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가까운 시기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력이 신장되게 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역의 단계적 감축과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현역만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평화유지활동에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비군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경찰 등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세계평화, 평화유지활동, 국가안보, 예비군, 파병

Profiles **Se Young Lee** : Currently He serves as a professor of Military Police Department in Konyang University after completing doctoral course from Deajeon University. He has studied a wide variety of military subjects such as national defence policy, reserve forces, military culture and education. Also He has mainly written long or short papers regarding these issues: A Study of Declaration Requirement for Military Mobilization and Positive Law (2009), A Study of Method on the Formation of Reserve Forces from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Section Eight(s), and Special Specialists. (2010), A Study of Reserve Overseas Dispatch (2010), A Study on Expansion of the Army Force Base (2011), A Study on Management of POMCUS (Prepositioning of Material Configured to Unit Sets) (2011), Appraisals gyeryong Military Culture Festival (2011~2015), Method on Development of the World Peace Park in DMZ (2014),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Veterans (2015), and others(lsy0758@hanmail.net).